

物慾을 버리고 仁術에 전념하라는 교훈을 남기고...



鄭 求 忠 박사
(1895~1986)

素庭 鄭求忠박사는 1895년 11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에서 鄭鎰溶씨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1913년에 漢城高普를 졸업한 후 뜻한 바 있어 일본 大阪 醫大에서 外科學을 전공하였다.

귀국하여 한국의사연구회에 참여 하였으나 한일합방으로 인해 한국의사연구회도 해산을 당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다시 한성의사회가 조직되자 鄭박사는 여기에 적극참여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헌신의 노력을 바쳤다. 鄭박사는 한성의사회의 22대, 23대 회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의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1930년 도일하여 대판의대 竹尾結核연구소에서 2년간 연구한 끝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안동, 해주, 초산 등 도립병원 외과과장을 지내면서 농어촌의 진료에 헌신하였다.

1939년 8월 서울의전 학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의학교육의 일선에서 후진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47년 대한외과학회장, 1957년 국제외과학회장, 결핵협회회장, 1959년 대한의학협회장 등에 피선되기도 했다. 이처럼 鄭求忠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를 끌어 오셨던 분이며, 의학계의 증인으로서 한국의학계의 상징이라고 지칭되어도 과언은 아닐 만큼 귀감이 되고 있다.

先生이 항상 「물욕을 버리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싶다.

선생은 성품이 溫雅할 뿐만 아니라 仁慈하였으며 私心보다는 公心이 투철하여 개인의 명달은 두려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 한국 의학계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하였다.

한편 노후까지 집필한 「한국의학의 개척자」와 더불어 타계하기 직전에 정남술 장학재단을 부인과 뜻을 같이하여 설립했던 높은 뜻과 거룩한 偉德은 우리 의학계에 빛나는 업적으로 영구히 남을 것이다.

선생은 장수를 누리면서도 남다른 건강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독서와 산책을 취미로 하여 철저한 규칙생활을 엄수한 것이 비결이었다고 한다.

선생은 항상 仁術을 강조하였고 몸소 실천의 위업과 후학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기고 1986년 향년 91세를 일기로 타계 하였다.

李 柱 傑

(大韓神經外科學會 名譽會長)